

전남 63개 섬 '명품 테마숲' 만든다

섬별 향토·문화·역사 등 부각
사계절 꽃섬·레포츠 섬숲 등 조성
전남도 2029년까지 3750억 투입

전남도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와 연계, 섬별 향토·문화·역사성을 부각한 난대 숲 복원·조성을 통해 블루 이코노미 대표 명품 테마숲을 조성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65개 섬(전국 3352개)의 비교우위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남의 가고 싶은 섬, 천사대교 개통 등으로 섬 관광 수요 증가에 걸맞는 테마 섬 숲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올해 신규 국고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오는 2029년까지 총 37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전남도의 도서지역 실태조사와 서남해를 중심으로 한 구상용역 자체 실시 등 섬숲 복원에 대한 청사진 제시에 따라 이번 자원을 결정하게 됐다.

전남도는 서해안 영광을 시작으로 남해안 광양까지 16개 시·군 63개소의 섬 지역을 중심으로 세 가지 유형의 테마숲을 복원·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영광군과 함평군, 무안군, 목포시, 신안군, 진도군, 완도군 등 다도해권을 중심으로 사계절 아름다운 꽃이 필 꽃섬 35개소를 조성한다. 대표 선도 사업으로 신안 하의도 평화의 숲 조성에 350억원을 투자해 동북아 평화 상징숲을 추진중에 있다.

영암군, 강진군, 해남군, 장흥군, 보성군 등 남도문화권을 역사·문화·인문 콘텐츠를 기반으로 섬숲 14개소를 복원해 지역의 관광 자원과 연계한다.

여수시, 고흥군, 광양시 등 해양레저권은 섬과 섬을 연계한 해양레포츠 섬숲 14

개소를 조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43억원을 확보해 산림청과 전남도, 신안군이 공동으로 연구해 신안군 안좌도와 자은도 일원에 섬숲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 전남 섬 지역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 될 숲을 발굴·조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현식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병해충 피해, 태풍 등으로 방치, 훼손된 섬숲을 복원하고 새롭게 조성해, 섬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생활터전을 제공하고 방풍림으로써 기능도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섬 특유의 문화와 인문자원 등과 어울리는 테마숲을 조성해 블루 이코노미 대표 해양 경관으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5·18 역사 현장에 태산목 13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동구청과 5·18단체 관계자가 태산목을 심고 있다. 동구와 5·18단체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고 오월 정신을 선양하고자 '부활'과 '위엄'을 상징하는 태산목을 심었다.

광주시 인공지능 데이터산업 인력양성 나선다

다음달부터 (주)에이모와 협력
교육 후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

AI중심도시인 광주시가 인공지능 데이터 산업 인력을 양성한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시장의 밑거름이 되는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고 광주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주)에이모와 함께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데이터 전처리 교육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은 6월부터 8월 중 광주시청 전산교육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선착순으로 총 8시간만 이수하면 수료가 가능하다.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은 교육평가 결과를 토대로 (주)에이모와 계약 후 비대면 일자리 투입, 즉 재택근무자가 될 수 있다.

(주)에이모는 2016년 3월 경기도 성남에 설립된 데이터 가공기업으로 인공지능 모델링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시는 또 (주)에이모, (주)네온테크, (주)

NBP, 광주과학기술원과 함께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주최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에 '자율주행드론 비행영상 AI데이터'를 주제로 공모하고, 지난 7일 제안서를 제출했다. 선정 결과는 이달말에 발표된다.

공모에 선정되면 데이터 가공 교육을 마친 교육생들은 곧바로 자율주행드론 비행 영상 전처리과정부터 참여 가능하며, 광주의 데이터를 광주시민이 직접 가공처리할 수 있게된다. /박진표 기자 lucky@

21대 총선 당선인에 듣는다

민주당 여수갑 주철현

"민주정권 재창출에 앞장 서겠다"

10·19여순사건 진상조사 주력
산단특별법 제정 상생 제도와
국제해양관광도시 여수 만들것
대화·토론, 국민위한 정치 전력



4·15총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61) 여수갑 당선인은 13일 "호남 대표 정치인으로 민주정권 재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주 당선인은 이날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과 민주당 개혁 동력 확보를 위한 여수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이러한 민심을 받아 안고 사법개혁과 공정사회 정착,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민주정권 재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등원 후 최우선 과제로는 10·19 여순사건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을 꼽았다.

주 당선인은 "여수의 여러 현안을 검토 중이다. 그중에서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현안은 70년 여수의 한을 푸는 것"이라며 "10·19 여순사건은 제주 4·3사건과 연장선에 놓인 우리 현대사의 아픈 역사지만 아직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은 관심 밖에 밀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여수산단과 관련해서는 노동자와 시민, 기업 모두 상생할 방안을 제도화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가장 석유화학 산단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산단 노동자와 기업, 주민들이 환경과 안전, 건강 그리고 상생 문화를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4년 임기 동안 '국제해양관광도시 여수' 만들기에 앞장서겠다

는 의지도 밝혔다. 주 당선인은 총선 공약으로 해양관광공사 설립 및 여수 유치, 여수항 동북아 해양물류 거점항구 육성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주 당선인은 "민선 6기 여수시장을 하면서 여수의 미래는 해양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시민들께 여수의 미래를 위해 '신해양시대를 열겠다'고 약속드린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여수가 국제적인 해양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해양관광, 해양레저스포츠, 해양물류 그리고 수산업 등 해양 자원을 잘 활용해야 한다"며 "필요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4만8410표(64.4%)를 득표, 2만3128표(30.8%)를 얻은 현역 이용주 의원(무소속)을 누르고 당선됐다.

주 당선인은 "선거가 끝났지만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 모두 치유되지

는 않은 것 같다. 여수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저부터 포용하고 지역이 화합할 수 있도록 상생의 정치를 펴겠다"고 언급했다.

주 당선인은 이번 총선 출마에 대해 "민선 6기 여수시장을 지내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 정치도 중요하지만, 중앙에서 여수를 대변하는 정치, 지역을 이끌 다음 세대를 키우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 사정을 잘 알지 못하던 지역과 괴리감 있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고, 나 홀로 정치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기존 정치인들을 보면서 느꼈다"며 "여수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나 홀로 정치'가 아닌 여수와 '더불어 정치'를 하기 위해 국회의원에 도전했다"고 말했다.

주 당선인은 조선의원에서 한국 정치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는 바람도 나타냈다. 주 당선인은 "정당정치는 국민을 향한 정치적 경쟁의 연속으로, 이 과정에서 각 정당의 주장은 대의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다만 그 경쟁의 과정에서 대화와 토론, 합리적 협상이 배제된 물리적 충돌과 명분 없는 발목잡기, 막말 정치 때문에 국민은 정치를 불신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저부터 토론과 합리적 경쟁, 정치적 결정의 순간 그 기준은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발전'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정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주 당선인은 여수고와 성균관대학교(법학)를 졸업했다.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연수원 15기를 수료하고, 광주지검장을 지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여수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곡성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긴급 조치

곡성군 육과면 합강리 인근 산림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함에 따라 전남도가 긴급 확산 차단 조치에 들어갔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의심 증상이 있는 소나무 2그루를 국립산림과학원에 진단 의뢰한 결과, 1그루가 감염목으로 최종판정됐다.

이에 따라 최근 곡성군 감염목 발생현장에서 산림청을 비롯한 국립산림과학원,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

전남·북, 곡성군, 인근 시·군이 참여한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중앙방제대책회의를 갖고 긴급방제체제에 돌입했다.

전남도는 소나무재선충병의 감염 시기·원인·경로 확인을 위해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역학조사반을 꾸려, 피해지역 현장조사와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정밀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지역 반경 2km 이내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

역으로 지정하고, 직경 2cm 이상인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의 이동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농가 등에서 재배 중인 조경수 등은 전라남도 산림자연연구소에서 미감염 확인증을 받으면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한편 전남도는 현재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인 11개 시·군의 감염목 1만 1241그루를 모두 제거했으며, 예찰방제단을 활용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예찰·방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